

# 한국의 가족 및 친족간의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 국제간 비교의 맥락에서\*

정재기

(송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특성을 국제 비교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모듈인 '사회관계와 지원체계'를 조사한 2004년 한국일반종합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친족 간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에서 친족이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대면적 친족접촉빈도가 조사 대상 국 중 최하위 권에 있으며, 한국의 가족 및 친족이 정서적 지원보다는 도구적 지원의 대상으로 작동하는 성격이 보다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낮은 친족접촉빈도는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강한 가족주의의 전통으로는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교적 전통 중 위계적 집합주의가 심소한 대면적 접촉빈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도구적 가족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친족집단의 낮은 정서적 지원정도와 위계적 집합주의와의 관련이 논의되었다. 또, 이러한 낮은 정서적 지원의 양상이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가 비정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핵심단어:** 가족 및 친족, 사회적 지원, 사회관계의 도구성, 합리적 선택, 비개인화

## I.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특성을 국제 비교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논자에 따라 가족주의의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 사회가 강한 가족주의의 전통에 기반 하고 있으며, (이광규, 1994) 이러한 가족주의적 전통은 현재의 한국사회의 가족 관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적 관계양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화된 인식일 것이다.

예를 들어, 급증하는 이혼율과 낮은 출산율에 대한 우려를 전통적 가족주의의 재구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신용하·장경섭, 1996), 가족주의가 한국사회의 만연한 연고주의의 근원이라는 입장(조혜정, 1986; 최재석, 1994; 김동춘, 2002) 등의 국내학자의 논의뿐만 아니라, 가족주의를 한국 대기업 집단의 폐쇄적인 기업지배구조와 연관시키는 후쿠야마의 논의 (Fukuyama, 1995) 등에는 한국의 가족이 다른 여타의 사회의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결속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연결망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판단은 한국의 가족이 여타의 가족에 비해서 보다 더 강한 연계 (strong tie)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의 고

\* 본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 석현호 선생님과 이재열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송실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다.

전적인 정의에 따르자면, 연계의 강도는 감정적 친밀성, 지속기간, 접촉빈도라는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가족관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강한 가족 간의 유대라는 것은 감정적 친밀성과 접촉빈도의 두 가지 특성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다면, 한국의 가족 및 친족집단은 빈번한 접촉과 끈끈한 감정적 교류에 기초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교적 가치가 오히려 친족 간의 직접적인 감정적 교류를 제약하고, 접촉빈도를 낮춘다는 논의도 존재할 수 있다. 유교적 가치는 사회관계를 위계적 서열체계 속에서 규정하며, 소속해 있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이러한 한국의 친족관계의 특성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가족은 재생산 및 양육, 그리고 일상적 지원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여타국가에서도 가족은 가장 중요한 집단이며, 가장 일차적인 사회적 지원의 자원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관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던질 수 있는 유효한 질문은 도대체 한국사회의 가족관계의 특성이 다른 사회에 비해 어떠한가 하는 것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친족관계의 접촉의 성격을 조망한 후, 본 연구는 한국의 가족(친족)관계의 특성이 보여주는 몇 가지 경험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한국 가족(친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 1. 유교와 한국사회: 위계적 집합주의

유교적 전통은 한국의 문화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베버(Weber, 1968)는 집단 위계와 혈연에 대한 강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 그리고 식자에 대한 존중 등을 유교적 가치의 주요특징으로 삼는다. 이러한 베버의 관찰은 이차적 문헌의 독해에서 근거한 것이지만, 많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기 역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22개의 여행기에 근거하여, 차재호(cha, 1994)는 가계에 대한 강조, 관계에 대한 의존, 위계, 그리고 겸손(courtesy)의 특성이 이방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중심적 요소로 관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전형적으로 개인이 자신들의 목표를 대부분 지속적인 내집단인 집합체의 목적에 종속시키는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집합주의적 특성은 몇 가지 주요한 국제비교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호프스테데(Hofstede, 1991)의 개인주의 지표에서, 한국은 53개국 중 43위에 위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집합주의적 특성은 친족 간의 긴밀한 관계와 연관되기 쉽다. 본 연구와 유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홀링거와 핼러(Hollinger and Haller, 1990)은 “친족관계의 친밀성은 영국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로 갈수록 강해지며,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하다.” 라고 서술한 후, 산업화의 시기보다는 문화적 유형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예를 들어, 산업화의 정도가 월등한 북부 이탈리아의 친족관계는 남부 이탈리아와 별다른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강한 집합주의적 특성을 한국에서도 긴밀한 친족관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친족들 간의 잦은 접촉과 활발한 사회적 지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교적 전통이 이러한 가족(친족)간의 긴밀한 정서적 교류를 저해한다는 논의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유교의 가르침이 사회관계를 위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상이한 위계들을 접하고 있는 행위자들간의 적절한 사회적 규범(예)을 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버에 의하면, “군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관습(status mores)과, 유교의 가장 기본적 (!) 개념인, 예의 가르침에 따라 ..... 그의 행동, 몸짓, 운동을 조절한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자기통제(self-control), 내성(self-observation), 삼감(reserve) 발견한다. 우리는 기쁨까지도 포괄하는 모든 종류의 열정의 억제를 발견한다.” (Weber, 1961: 156 강조 원문) 또, 그는 군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군자의 윤리에 특별한 것은 모든 일들이 사회적 적절성의 규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솔직함의 미덕에 대한 장벽은 예의 명령이다” (162).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유교적 전통하의 가족관계는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효가 최고의 덕목이었다는 점에서 가족의 가치가 중시되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의 양상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의례적인 측면이 강할 것이다. 특히, 가족 내의 화합과 조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솔직한 의사표현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유교의 가르침이 언제나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의 양상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일본 사회의 가족관계에 대한 몇몇의 연구는 이러한 위계를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웰만 (Wellman)의 토론토 스터디를 일본에 적용하여 일본인의 사회적 지원관계를 연구한 오타니는 “약 65%의 토론토 인이 친족을 그들의 매우 가까운 접촉대상 close intimate로 꼽은 데 반해, 일본인의 45%만이 그러하다” 라고 보고하고 있다 (Otani 1999: 282). 또, 일본의 가족관계를 독일의 그것과 비교한 샬로몬(Salommon 1977)은 일본의 “가족관계에서는 항상 의무와 조심(watchfulness)의 요소가 느껴진다.” 라고 관찰한 후, 일본인에게 있어 감정적 친밀성은 가족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함께 할 것이 라고 전제되는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첫 번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연구문제 1: 한국의 가족 및 친족 간 접촉빈도는 다른 여타국가와 비교하여 어떠한가?**

## 2. 사회적 지원의 양상

### 1) 사회적 지원과 친족의 역할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의는 학문별로 다양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요구를, 시장이나 공식적 기관이 아닌,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House, Umberson and Landis, 1988; Wellman and Worthley, 1990).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배우자, 친한 친구, 그리고 도움을 주는 친척들이 있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분류는 다양하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건강상태를 연구한 House(1981)는 감정적, 도구적, 정보적, 평가적 (appraisal)의 4가지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학적 연구들은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의 변이에 주목한다. Fischer(1982)는 카운슬링, 사교(companionship), 실질적 지원(practical)의 세 차원으로 나눈 후, 사회적 지원의 각 차원이 상당히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차원에서 사보부한 사회적 지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차원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은 사회적 연결망의 특화된 부분에서 나온다. 우리는 보통 친구와 좋은 시간을 나누지만, 위기에 모이면, 친척에게 의존한다. 나이 많은 이들이(older men) 돈을 제공하며, 카운슬링을 위해서는 주로 배우자와 핵가족의 성원, 그리고 친구에게 의존한다.” (132)

또, 토론토 인근의 주민의 사회적 지원망을 연구한 웰만과 워트리(Wellman and Worthley 1990)는 18개의 지원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6개의 요인을 추출한 후, 이 중 정서적 지원, 작은 지원 (small services), 큰 지원 (large services), 재정적 지원, 그리고 사교 (companionship)의 5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들은 우선 연결망 성원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의 차원은 그리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피셔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관계의 강도, 근접성, 집단의 동학, 친족관계 등 이러한 지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감정적 친밀성으로 대표되는 관계의 강도와 친족관계여부가 사회적 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80%가 넘는 부모-자녀 관계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가장 중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북미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연구는 가족이 정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의 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정서적 지원은 사회 전반의 산업화와 도구적 관계의 확산의 추세에 대응하여, 독립적인 서정적 보호공간을 가족 내에 확립하고자 하는 근대의 핵가족의 이념에 부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경섭, 1994; 57). 하지만, 본 연구의 맥락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서정적 가족주의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북미에서도 여전히 가족관계의 도구적 유용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족에 관한 한국의 많은 연구는, 한국가족의 도구성(장경섭 1999) 혹은 공리주의적 가족주의(김동춘 2002) 등에 주목한다. 식민지, 미군정, 한국전쟁 과 개발주의적 독재의 시기에 걸친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국가가 공식적인 권위를 확립하지 못하고, 기존의 공동체적

관계가 와해된 상태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거의 유일하게 유지되어 온 가족원 사이의 사회적 연대에 대한 의존이 강화” (장경섭, 1994:55)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구적 가족주의의 모습들은 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 대기업 집단의 가족 중심적 소유 경영형태, 무급 가족 봉사자의 노동에 근거한 자영업의 상대적인 확장 등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대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한국의 가족의 도구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었다면, 한국의 가족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보다는 도구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욱 활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 연구문제 2: 한국의 가족의 사회적 지원양상은 도구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중 어떠한 성격이 더 강한가?

### 2) 가족관계의 도구성: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접촉빈도

이러한 가족관계의 도구적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자녀간의 접촉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결망에서 친족이 차지하는 위치는 부적의 관계인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개인적 연결망에서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마스덴 (Marsden, 1987)은 이러한 경향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결망 크기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즉, 연결망 규모, 다시 말해, 친족이 아닌 연결망 성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친족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지 친족 간의 관계가 약해지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접촉빈도의 측면에서는 서구의 연구들은 분명한 경향을 제시한다 (Willmet, 1977; Laumann 1983; Marsden 1987). 부분적으로는 노동자 계층이나 농민의 사회 이동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적은 규모의 사회연결망이 주는 시간적 여유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친족 간 접촉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구적 가족주의가 한 사회를 지배한다면 가족 간의 접촉빈도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적인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도구적 합리성의 견지에서 사회적 관계를 분석할 때, 합리적인 행위자는 상대방(alter)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려는 성향이 더욱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Laumann, 1973; Coleman, 1990).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실험연구는 행위자의 권력이 강한 이자관계(dyad)에서 긍정적 감정과 관계의 응집성이 더욱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Lawler and Yoon 1998).

요약하면, 사회적 관계의 성립 및 유지에 드는 시간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접촉빈도간의 부적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관계의 도구적 성격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가족 및 친족관계의 접촉빈도가 더욱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친족관계의 도구적 성격이 강할수록, 접촉빈도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긍정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문제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부모-자녀의 접촉빈도는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III. 자료 및 변수

#### 1. 자료

한국 친족의 접촉 빈도 및 사회적 지원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선 200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의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이 자료에선 권위있는 국제협력 사회조사 프로그램인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의 2001년 특별주제인 ‘사회관계와 지원체계’를 특별주제로 포함시켜 ISSP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러 국가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석현호 외 2004) 한국의 경우 총 사례수는 1312명이었으며, ISSP 2001년 모듈에 참가한 인원은 총 25개국 33232명이었다. 영국의 사례수가 가장 작았으며 (912명)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수가 가장 많았다 (2563명), 평균은 1329명 표준편차는 381이었다. 이러한 국가 간 사례수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포함된 국가<sup>1)</sup>의 전체평균은 국가별 평균을 구한 후 이의 평균을 구하였다.

#### 2. 변수

종속변수: 본 연구의 분석의 종속변수는 형제, 자녀, 부모 등 친척과의 대면적, 비대면적 접촉 빈도<sup>2)</sup>와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 것입니까?” 라는 설문으로 확인한 도구적 지원과,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통해 확인한 정서적 지원의 제공자이다. 접촉빈도의 경우 각 변수의 중앙값에 가까운 범주를 선택하여, 그 해당범주보다 빈번한 접촉을 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어 각 국가별 평균을 계산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대상의 경우, 애초에는 ‘없음’, ‘배우자,’ 핵가족 ‘,’ 확대가족 ‘,’ 친구 ‘,’ 이웃 ‘,’ 직장동료 ‘ 공식적 기관으로 나누어 부호화하였으나, 확대가족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 기타 가족 친족 “으로 친족집단을 나눈 후, 국가별로 각 범주의 상대빈도를 구하였다.

독립변수: 본 연구의 우선적인 목적은 한국의 접촉빈도 및 사회적 지원의 양상이 다른 여타 국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 간 비교에서 국가의 여러 속성을 변수화한 체계적인 연구는 행해지지 않았다. 연구문제 3과 관련된 다변량 분석에서, 결혼상태는 기혼, 미혼, 기타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교육수준은 교육연수를 사용하였다. 소득은 각 국가의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미국, 일본,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캐나다, 사 이프러스, 스페인, 프랑스, 슬로베니아, 필리핀, 러시아, 브라질, 라트비아, 칠레, 스위스,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북아일랜드, 헝가리,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아랍계, 핀란드 등이다.

2) 모든 분석에서 사례수가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는 자녀와의 접촉빈도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 해당 대상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비대면적 접촉에서 분석되었다.

#### IV. 결과

##### 1. 친족 간 접촉빈도의 국제비교

<표 1>은 친족 간 접촉빈도의 기초적 통계치인 최고값, 최저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후, 한국과 일본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표 1> 국가별 각 친족관계 접촉빈도: 최고값, 최저값, 평균, 표준편차 한국과 일본의 값과 순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한국	일본
형제와의 대면접촉	0.18 (일본)	0.86 (이스라엘아랍)	0.44	(0.17)	.24(24)	.18(27)
형제와의 비대면접촉	0.18(일본)	0.84(이스라엘유대)	0.52	(0.15)	.57(8)	.18(27)
자녀와의 대면접촉	0.41 (한국)	0.94 (이스라엘아랍)	0.69	(0.13)	.41(27)	.47 (26)
자녀와의 비대면접촉	0.27(일본)	0.87(이스라엘유대)	0.52	(0.13)	.58(8)	.27(27)
부친과의 대면접촉	0.23 (일본)	0.98 (이스라엘아랍)	0.49	(0.18)	.23(26)	.23(27)
부친과의 비대면접촉	0.21(일본)	0.86(사이프러스)	0.54	(0.16)	.64(7)	.21(27)
모친과의 대면접촉	0.27 (한국)	0.93(이스라엘아랍)	0.55	(0.17)	.27(27)	.27(26)
모친과의 비대면접촉	0.27 (일본)	0.91(사이프러스)	0.65	(0.16)	.73(8)	.27(27)
삼촌 등과의 접촉	0.25(뉴질랜드)	0.87 (이스라엘아랍)	0.46	(0.13)	.30(25)	.32(24)
사촌등과의 접촉	0.25 (일본)	0.86(이스라엘아랍)	0.45	(0.14)	.30(24)	.25(27)
시부모등과의 접촉	0.47(호주)	0.93(이스라엘아랍)	0.66	(0.10)	.65(15)	.50(24)*
매제등과의 접촉	0.50 (일본)	0.80(이스라엘아랍)	0.65	(0.08)	.58(23)	.50(27)
사촌등과의 접촉	0.42 (일본)	0.92 (이스라엘아랍)	0.61	(0.11)	.45(26)	.42(27)

\* 26개 국 임 (노르웨이 제외)

우선 첫 번째 줄을 보면, 한국에서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대면 접촉을 갖는 응답자의 비율은 24%였다.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아랍인으로 86%였으며, 최저치는 일본으로서 18%였다. 한국의 24%는 27개 분석 단위 중 24위에 해당하며 ISSP에 포함된 국가의 산술평균(43%)에 대해 표준편차(17%) 이상 낮은 것이다.

<표 1>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가족(친족)간 대면접촉비율이 굉장히 섬소한 편이라는 것이다. 형제, 동거하지 않는 부친 및 모친, 동거하지 않는 자는 자녀 등 직계 가족과의 대면접촉비율의 순위는 가장 낮은 경우 26위, 가장 높은 경우가 23위였으며, 일 표준편차 이상 26개국의 산술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일본은 대부분의 대면 접촉빈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거하지 않는 부친 및 모친의 접촉비율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와의 동거비율에 기이한 것일 수도 있다. 기실, 한국의 60세 이상 부모의 자녀와의 동거비율은 일본과 함께 상당히 높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표에서 자녀와 부모의 자녀접촉빈도는 어느 자녀와도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응답에 기초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세대가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대면적 접촉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촌 이상의 친족과의 접촉빈도 역시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한 달간 이들과 접촉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측정했을 때, 시부모 혹은 장인 장모와의 접촉을 제외한 삼촌, 사촌, 조카등과의 접촉역시 한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

히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비대면접촉의 경우는 한국은 중상위권의 접촉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와 전화 등의 비대면적인 방법으로 한 번 이상 접촉하는 사람은 57% 정도이고, 동거하지 않는 (가장 접촉이 잦은) 자녀와 1주일에 최소한 한 번 비대면적 접촉을 하는 부모의 비율은 58% 정도로, 조사에 포함된 국가의 산술평균보다 약 5-6% 정도 높은 수준이다. 동거하지 않는 부친 혹은 모친과 1주일에 한 번 이상 비대면적 접촉을 하는 응답자역시 각각의 국가별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비대면적 접촉도 극히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위에서 분석된 변수들 간의 잠재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국가별 접촉수치에 근거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부하값

	요인 1	요인 2
형제와의 대면접촉	0.868	0.301
형제와의 비대면접촉	0.464	0.838
부모와의 대면접촉	0.759	0.434
부모와의비대면접촉	0.176	0.882
부친과의 대면접촉	0.819	0.485
부친과의 비대면접촉	0.191	0.941
모친과의 대면접촉	0.779	0.536
모친과의 비대면접촉	-0.031	0.958
삼촌 등과의 접촉	0.935	0.095
사촌등과의 접촉	0.937	0.022
매제등과의 접촉	0.596	0.479
사촌등과의 접촉	0.844	-0.024
고유값	7.590	2.440
설명된 분산(%)	63.2	20.400

주: \* 주성분분석 \*\* 직교회전

<표 2>는 위에서 제시된 변수들이 대면적 접촉과 비대면적 접촉의 2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삼촌이상 친족과의 접촉은 직계가족과의 대면적 접촉과 공통의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면적 접촉의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은 7.59로 전체 분산의 60%이상을 설명하고 있어, 국가 간 친족관계의 변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분석의 결과를 변수로 산정하여 첫 번째 요인의 순위를 산정하였을 때, 한국은 27위 일본은 25위를 기록하였다. 두 번째 요인값의 순위에서도 한국은 7위 정도를 차지하였지만, 일본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친족 간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한 유교적 전통이 강한 가족 간 접촉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논의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가족 간의 결속과 화합의 강조가 가족성원들 간의 친밀하고 직접적인 정서적 교류를 저해하고 있다는 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사회적 지원에서 친족의 위치

<표 3> 한국의 사회적 지원망의 구성과 국제평균과의 비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한국	국제평균	한국	국제평균
아무도 없다	7.0(17)	9.45	4.7 (10)	5.1
배우자	8.9(21)	15.5	20.7(27)	39.7
가족 및 친족	51.9(7)	41.0	17.3(24)	25.2
친구, 이웃, 동료	19.1(3)	7.6	55.3(1)	23.2
공식적기관	13.2(25)	26.3	1.1 (26)	6.7

주: 가로안은 한국의 순위

<표 3>은 한국의 가족과 친족이 사회적 지원망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한국인의 8.9%는 배우자에게, 51.9%는 기타 친족에게 19.1%는 친구나, 이웃, 직장동료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수치는 28개국 중 배우자의 비중은 21위, 기타 가족 및 친족의 범위는 7위, 친구, 이웃, 동료의 비중은 3위인 것이다. 3) 배우자와 가족을 합하였을 때, 친족의 비중은 약 60%로 전체 국가별 평균(56.5%)을 약간 상회하였다. 이에 반해 정서적 지원망을 측정하기 위한 “우울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상의하겠나”는 질문에 대해 53.1%의 응답자는 친구나 이웃 및 동료에게 정서적 지원을 청한다고 하였는데, 이 수치는 27개국의 산술 평균의 2배를 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배우자의 비중은 가장 낮은 20.7%, 다른 가족 및 친족의 비중도 24위인 17.3%로 조사대상국의 평균(64.9%)을 대폭 하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결국, 한국의 정서적 지원망에서 친족이 차지하는 비중(38%)는 전체 국가별 평균인 64.8%보다 훨씬 낮은 데 반해, 도구적 지원망에서는 국제평균을 약간 상회하였다. 무엇보다도 정서적 지원망에서 차지하는 친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구적 지원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도 낮은 것이다<sup>4)</sup>. 국제간 비교라는 상대적 의미에서나, 절대적인 수치의 구성 양면에 있어서 한국의 친족관계에서 정서적 성격보다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친족 간 접촉빈도: 자녀, 부모관계를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북미나 영국의 개인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친족 간의 접촉이 잦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결망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의 이론은 사회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을수록, 사회적 관계가 공고화될 것

3) 각 국가별로 공식적 금융기관의 이용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사회적 지원이라는 본래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위의 범주 중 공식적 기관과 아무도 없다라는 응답자를 제외한 3개의 범주를 합한 후, 이 중에서 각각의 범주의 비중을 계산해보았다. 예를 들어, 이 때 한국의 배우자의 비중은 약 11%(=8.9/(8.9+51.9+19.1))이었다. 이는 국가별 산술평균인 25.5%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순위는 25위였다. 이는 경제적 공동체 관념이 강한 한국의 가족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배우자간의 도구적 교환이라는 개념은 한국의 가족관계에서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4) 도구적 지원망에서의 친족의 비중이 정서적 지원망에서의 친족의 비중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

임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관계가 강한 도구적 가족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 간 접촉이 활발해 질 것이란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 하여, 본 연구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분석하였다. 여타의 친족 관계가 아닌 자녀-부모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합리적인 선택론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으로서의 매력(attractiveness)의 척도로 기능할 수 있다. 5) 두 번째, 분석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연결망 자료가 아닌 본 조사의 성격상, 대상(alter)의 매력(attractiveness)을 다른 관계에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형제관계의 접촉빈도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높아짐에 따라 활발해진다 하더라도 6) 이러한 활발한 접촉빈도의 원인이 응답자의 매력 때문인지, 응답자 형제(의 매력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동질성의 원인인지는 본 자료가 제공하는 변수로는 추론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것이 응답자의 선호의 결과인지, 상대방의 선호의 결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빈번한 접촉을 원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ego)의 선호도가 일정하다면, 접촉의 빈도는 상대방(alter)이 느끼는 본인(ego)에 대한 매력의 척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접촉요구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접촉빈도의 차이는 부모의 경제적 재산이라는 자원이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여 자녀와의 대면접촉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4>는 한국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4>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속성에 따른 자녀와의 대면접촉빈도를 종속변수로 한 이항회귀 계수와 T 값

	계수(t-값)
소득(logged)	.729(2.51)
교육(연수)	-.000(-.02)
연령	-.04(-1.52)
성별(남성이 준거집단)	-.277 (-.66)
결혼상태	-.126(-.31)
Pseudo R2	.06

주: N=158

위의 표는 60세 이상 부모의 속성 중 오직 소득만이 유의미하게 자녀와의 대면접촉빈도를 예측하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을 대수화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모의 소득이 1% 높아지면, 부모가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대면접촉을 할 우도비는, 평균 2.07배 (=exp(.73))배 정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일한 분석을 자료에 포함된 다른 국가에도 실시하였다.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전제하기 위하여, 분석을 OECD국가로 한정하였다. 표 5는 각 국가별로 교육과 소득변

5) 굴드(2002)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매력(attractiveness)과 이용가능성(availability), 두 가 능성의 함수이다.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행위자는 나와 관계를 맺어줄 (available) 사람중 가장 매력 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선호한다.

6)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수의 t-값만을 제시하였다. 유의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수도 가로안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 5>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와의 접촉빈도에 관한 이항회귀계수의 T-값

	교육	소득
영국(148)	-2.57	-1.56
미국(141)	-.86	-1.31
오스트리아(290)	-1.91	0.16
캐나다(172)	.60	-.14
프랑스(170)	-1.57	-2.98
스페인(139)	.43	.14
핀란드(132)	-.148	.45
헝가리(168)	-1.31	-.85
일본(148)	-2.34	1.47
노르웨이(168)	-.97	1.52
뉴질랜드(182)	.92	-1.02
폴란드(191)	-2.03	.31
러시아(229)	-1.51	-.68
호주(282)	-1.46	.58

주: ( )은 각 국의 사례수

위의 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높아짐에 따라 친족 간의 접촉빈도가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대체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의 경우, 영국, 일본, 폴란드 등에서는 유의미하게 부의 효과를 가졌으며, 스페인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계수값이 음이었다. 이에 반해 소득의 효과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7개 국가에서 가구소득과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소득이 유의미하게 부모의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높이는 사회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와의 접촉빈도의 비교분석 결과역시 한국 가족 관계가 강한 도구주의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는 논의를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한국의 가족관계가 강한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론적 현실적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족관계의 특수성이 우선 조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적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족 및 친족관계를 국제적 비교의 맥락에서 조명하는 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개인에 있어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집단이며, 사회적 지원의 가장 주된 근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반종합 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권위 있는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인 ISSP의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교 가능한 설문을 통하여 한국의 가족관계의 접촉빈도 및 사회적 지원의 양상을 비교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 중 하나는, 한국의 가족 및 친족의 접촉빈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가족 간의 결속을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친족 간 접촉이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배치된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유교적 전통으로부터 한국사회의 가족관계가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유교에서 중시하는 예절 및 집단의 조화를 강조하는 규범의 영향력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집단의 조화의 강조와 위계에 기반한 적절한 행위양식을 의미하는 예의 강조는 가족 간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의 확보라는 근대 핵가족의 일반적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의 가족관계가 상대적으로 비개인화(depersonalization (Cicirelli, 1994) 되어 있다는 해석을 제기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개인화란 관계 속에 배태되어 있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그 구체적인 개인들의 속성 및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화된 관계에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그들의 재량에 맡겨질 수 있다. 이 때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관계의 구체적인 양상은 상대적으로 변이가 많을 것이다. 이에 반해, 비개인화되어 있는 관계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규범에 의해서 지배받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가족 및 친족관계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범(7)-부모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강조, 아들 그 중에서 특히 장자의 우위-의 영향 하에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단의 규범이 유효하고, 특히 이러한 집단의 규범이 집단 간의 위계와 조화를 중시한다면, 행위자들의 자유로운 소통 및 친밀한 감정적 상호작용은 제약될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규범이 한국사회의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효한 규범인가 라는 질문을 익명의 논평자가 제기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정(Jeong, 2004)은 한국의 개인적 연결망을 분석하면서 이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결망 내에서 친족의 비중이 높으면, 전체 연결망의 밀도-연결망 성원들 간의 관계-는 높아진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족 및 친족 성원들이 서로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친족이 66%이상을 구성하는 '친족중심적 연결망' 과 친족이 33%이하를 구성하는 '비친족중심 연결망' 에 비해 친족의 비중이 33-66% 사이인 혼합 연결망에서 밀도가 낮았다. 이것은 친족성원과 비친족 성원들이 서로 잘 알 확률이 매우 약했기 때문이다.8)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가족 및 친족관계가 비개인화되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만약, 친족관계가 개인화되어 있고, 감정적 친화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역시 감정적으로 친밀한 친족이 아닌 연결망성원과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ranovetter, 1973). 이에 반해, 가족 및 친족관계가 비개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적, 정서적인 비친족성원(친구 및 동창)과의 관계와 규범에 의해 지배받는 친족성원간의 관계의 성격의 차이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가 긴밀해 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발견인 정서적 지원망에서 친구의 높은 비중은, 가족 간의 관계가 규

7) 아직도 이러한 규범이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도 여전히 유교적 전통의 영향력을 확인한 최선태, 이명진, 김재은 (2003)의 연구는 흥미롭다.

8)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친족-비친족 성원이 서로 잘 알 확률은 비친족-비친족 성원의 관계에 비해 낮지않았다. (Jeong, 2004)

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서적 지원을 가족 외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찾으려 하는 보완적 기제 일 수 있다는 것이 살로몬의 해석이다 (Salamon, 1977). 그녀는, 일본사회에서 친구와의 장기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의 함의를, 대안적인 정서적 지원대상의 확립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인의 개인적 연결망에 관한 분석역시 이러한 해석과 부합한다. 비친족 연결망 성원 중 한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학교 동창이었으며, 이러한 학교동창의 비중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갓 학교를 졸업한 20대이거나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50대이거나에 관계없이 동창의 비중은 일정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친구와의 관계가 장기적이며, 오랜 공통의 시간을 기반으로 긴밀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정서적 지원망의 결과와 관련하여,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발견은 정서적 지원망에서 배우자의 비중이 한국에서 가장 작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전통적인 유교적 전통의 영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유교의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은, 고전적인 보트(Bott, 1971)의 논의에 따르면, 전형적인 '분리된 부부관계 segregated conjugal relationship'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독단적으로 내리고, 부부간의 뚜렷한 역할분담으로 인해 상호조정 필요성이 적어지며, 여가시간을 같이 보내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부부간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고,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부부관계가 정서적 지원망에서 배우자의 비중이 낮게 발견되는 현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수준에서 성역할 규범과 사회적 지원의 양상을 분석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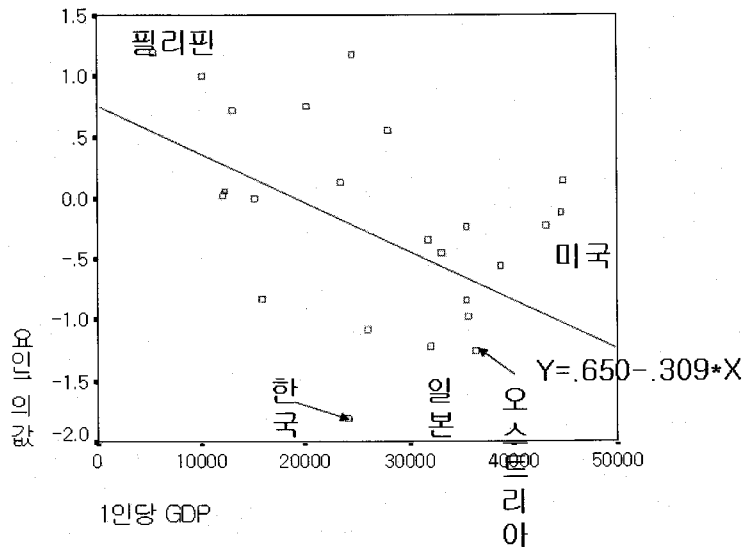
요약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가족관계에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는 기존의 논의를 지지해주고 있다. 도구적 지원망에서는 친족의 비중이 조사대상국의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정서적 지원망에서의 비중보다도 높았다. 또, 기존의 연구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친족 간 접촉빈도가 낮다는 서구중심의 기존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어떠한 관계에서도 두 변수간의 부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 제시되지 않음) 더욱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관계에서 도구적 고려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국 노인의 88.5%가 자녀에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재산소유가 필요하다는 인식(보건복지부, 2005)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가족관계의 구체적 양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구적 성격을 행위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기술적인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국제간 자료를 비교함에 있어 체계적인 분석의 틀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커다란 한계이다. 경제발전의 정도, 지리적 이동성의 정도, 가족 간의 사회경제적 이질성, 특정 종교의 비중, 가족의 거주형태 등의 다양한 변수들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비교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계적 가족주의가 한국의 낮은 접촉빈도에 기여한다는 본 연구의 논의는 위계적 집합주의가 국제간의 변이를 설명하는 데 유일하거나, 가장 강력한 설명틀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아랍의 높은 친족 간 접촉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아랍권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는 대가족 제도의 특성 속

에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쟁지역인 사이프러스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앞서 추출한 요인 1의 값을 종속변수로, 1인당 국민소득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시도 하였을 때, 한국은 가장 큰 잔여치(studentized residual)를 보이고 있는 극단치(outlier)였다.

<그림 1> 각국의 1인당 GDP와 요인값 1의 관계



<그림 1>의 좌측에는 필리핀이나 브라질 등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친족 간 접촉빈도가 높은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고, 우측에는 미국, 오스트리아 등 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림의 선은 국민 소득이 1만불이 높아지면, 평균적으로 요인값은 약 .3점정도 낮아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이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전제로 하였을 때, 한국은 단순히 순위만 낮은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자료에서 관찰되는 국민소득과 친족 간 접촉간의 관계로는 설명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수성, 그것도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특수성을 설명하는 보조이론으로 위계적 집합주의의 설명틀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지리적 이동성<sup>9)</sup>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지리적 이동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친족 간의 접촉빈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이동성이 한국의 낮은 접촉빈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형적인 예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급속한 산업화의 여파로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물리적 거리가 크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의 대면 접촉빈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는 도시에 거주하게 되고 부모는 지방에 거주할 때 대면 접촉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65세 이상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거주지역의 규모별로 대면 접촉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의 대면 접촉빈도가 낮았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이들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9) 이 문제를 지적해주신 두 분의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 $p=.235$  chi-square test),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자녀와 1회 이상 대면적으로 접촉하는 비율도 50%로 국제평균인 69%를 훨씬 하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 이동성이 낮은 대면접촉의 원인이라는 대안적 설명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대안적 설명은 친족 간의 상대적으로 큰 사회경제적 이질성이 긴밀한 친족 간의 관계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동질적이었던 친족 간의 사회경제적 이질성이 확대되면서 이것이 친족관계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역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촌 이상과의 접촉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와 여타의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강한 도구적 가족주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모와 자녀간의 낮은 접촉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가족관계가 도구적 가족주의에 특징 지워진다는 본 연구의 논의가, 한국인이 의식적으로 도구성에 입각해서 가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재은(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72.3%가 가족을 중요한 소속집단으로 삼아서, 국제평균의 53.1%를 훨씬 상회하였다. 이는 가족이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준거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부합되는 것이다. (최재석, 1994; 박통희 2004). 이와 관련하여, 박통희(2004)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가족주의를 “정서적 가족주의”, “가족 우선주의”, 그리고 “의사 가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흥미 있는 것은 소위 “정서적 가족주의”로 분류되는 5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힘들 때 혹은 기쁠 때 가족의 얼굴이 떠오른다.”, “가족의 희로애락은 곧 나의 희로애락이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을 생각하며 견뎌낸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다.” 등의 항목이 그것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족에게 받는 구체적인 정서적 지원이 아니라,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받는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을 내적으로 극복하는 데 가족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중요한 심리적 동기요소가 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한다면,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상의하겠습니까?’라는 항목으로 측정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가 약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본 연구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집단이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가 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접촉빈도가 감소하고 구체적인 정서적 지원이 빈번하지 않은가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춘 (2002) "유교와 한국의 가족주의" <<경제와 사회>> 2002 (55): 93-118.
- 김재은 (2004)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인의 가치지향>> 학술 심포지움 발표문.
- 박통희 (2004) "가족주의 개념의 분할과 경험적 검토" <<가족과 문화>> 16 (2): 91-125.
- 보건복지부 (2005) <<2004년 전국노인가구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결과>>.
- 석현호 외 (2004) <<한국종합사회조사 200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신용하·장경섭 (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서울: 지식산업사.
- 이광규 (1994)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6) 5-11.
- 조혜정 (1986) "가족윤리-공리적 가족집단주의와 도덕적 개인주의"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 복지사업재단.
- 장경섭 (1994) "한국 가족의 이념과 실제" . <<철학과현실>> (3): 51-66 .
- \_\_\_\_\_ (1999) "여성, 시장, 공공가족으로서의 국가: 재생산 사회화와 성질서" <<사회비평>> (18):298-327 .
- 최섯별, 이명진, 김재은 (2003) "한국의 가족관련 사회정체성 연구" 한국사회학 37:(5) 1-30.
-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일조사.
- Bott E (1971) Family and social network; roles, norms, and external relationships in ordinary urban families New York: Free Press .
- Cha, J. (1994).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pp. 157-174 in th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edited by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CA: Sage.
- Cicirelli, V. G. (1994). "Sibling Relationship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 7-22.
- Coleman, J.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ischer.C (1983) To Dwell among Friends: Personal Networks in Town and City II.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Simon & Harper.
- Gould, R (2002) " The Origins of status Hierarchies: A formal Theory and Empirical Tes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5): 1143-1178.
- Granovetter.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5): 1360-1380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 McGraw-Hill.
- House, J.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ss: Addison-Wesley.
- House, J. S., Umberson, D., & Landis, K. R (1988) "Structures and processes of social suppor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293-318.
- Jeong, J Status, Culture and Network Formation Unpublished Ph. D thesis University of Chicago.
- Laumann E.O (1973). Bonds of pluralism: The Forms and Substance of Urban Social Settings Indiana. Bobbs-Merrill.
- Lawler E.J and Yoon.J (1998). "Network Structures and Emotion in Social Ex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5): 871-94.
- Marsden .P.V (1987) "Core Discussion Networks of Americ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1): 45-64.
- Salomon,S (1977) "Family Bounds and Friendship Bonds: Japan and West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9(4): 807-820.
- Weber, M (1968) The Religion of China New York. Free Press.
- Wellman and Worthley 1990 "Different Strokes form Different Folks-Community Ties an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3):558-588.